

北·中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吳 承 烈*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北·中 經濟關係의 性格 및 制約要因 |
| II. 北韓經濟 現況 및 政策變化 | V. 北·中 經濟關係 展望 |
| III. 北·中 經濟關係 現況 | VI. 맺음말 |

I. 머리말

北韓의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 中國은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소련 및 동구와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쇠퇴한 1990년대에 북·중 경제관계는 빠른 成長勢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중경제관계는 무역 뿐만 아니라 두만강개발계획 및 상호간의 직접투자, 홍콩을 통한 중개무역 등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다.

이 글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 및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북·중

*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문에서는 북한경제의 현황과 정책변화방향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중·북경제관계의 현황과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전망하기로 한다.

II. 北韓經濟 現況 및 政策變化

북한경제는 1960년대 초반까지 자원동원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 결함과 과도한 군사비지출 등 원인으로 인해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표 1〉 北韓 國民所得의 年平均 成長率 推移

(單位: %)

'54-56	57-61	61-70	71-75	76-80	81-84	86-89	90	91	92	93
30.1	20.9	7.5	10.4	4.1	4.3	2.4	-3.7	-5.2	-7.6	-4.3

자료: 1954-89년 자료; I. Jeffries,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s to The Market: A Guide*, Routledge Publishing Company, London, 1993, p.197에서 재인용. 1990-93년도는 한국은행 평가치임.

〈표 1〉은 1954-1992년 동안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외형에 있어서 제1차5개년 계획(1957-61)완료시점까지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시된 제1차7개년계획(1961-67), 6개년계획(1971-76), 제2차7개년계획(1978-84), 제3차7개년계획(1987-93) 등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경제는 점차 침체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은 일본을 비롯한 西方工業國으로부터의 생산설비도입에 힘입어 어느 정도 경제성장속도를 회복할 수 있었다. 1970년대 후반 무역

결계수단의 결여와 외채상환능력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북한은 더이상 수입 설비에 의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 북한은 비교적 양호한 농업생산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이후 자급적 경제체제확립을 위한 불균형한 성장 정책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으나, 이념지향적 정치경제체제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체제의 개혁은 시도하지 못했다. 북한은 서방공업국으로부터 생산설비도입이 어렵게되자 1984년 「合營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의 誘致를 시도했으나,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체제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법률제정은 그 효과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북한은 대외경제분야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외에도 1985년 이후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실시를 강조함으로써 물질적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개별기업의 경제효율제고를 추진하였다. 또한 근래에는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은 개별기업소를 업종별로 묶은 연합기업소를 계획단위로 함으로써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생산단위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경제체제의 본질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 조치가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으며, 80년대 후반에도 북한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1년 구소련의 해체로 극적인 전기를 맞게된다. 즉 1990년도에 북한의 총 대외무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소련과의 무역량이 1991년도에는 14.1%로 감소하였으며, 북한경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소련으로부터의 원유도입도 급속히 줄어들었고 무역결제 역시 硬貨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991년 이래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쇠퇴로 인한 원유 등 주요 공업원자재 도입량의 감소,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에 기인한 수출시장의 상실,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심화 및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고조 등 요인에 의해 정권수립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부터 과거에 비해 과감한 대외경제개방조치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

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과 선봉 및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대외경제관련 법규를 제정 혹은 개정하였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은 1993년말 이래 생산경영단위 개편에 역점을 두어 생산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공업 및 대외무역 분야의 일부기업소를 자체경영권을 확대한 연합기업소 형태로 전환하였다. 반면 자체 생산경영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일부 에너지 및 기계화학공업분야의 연합기업소는 다시금 중앙의 직접적 관리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운영개선을 시도했다. 또한 1994년 2월에 있었던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일성은 가능한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국영농장경영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농업연합기업소」형태의 경영체제개편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생산경영체제 개편은 공업분야의 경우 물질적 인센티브와 중앙의 통제를 적절히 강화·배합함으로써 기존 경제계획체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업의 경우 경작규모 확대와 농업용 원부자재 공급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생산고 증대를 꾀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생산단위의 자발성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북한이 당면한 외화 및 물자부족난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중앙집중적 계획체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북한경제체제는 여전히 스탈린 경제체제의 기본 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최근의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역시 향후 2-3년간의 조정기간 동안 3차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중공업위주 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닌 것이다.¹⁾

1) 북한은 과거에도 중공업분야의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한 경제계획기간 종료후에는 농업 및 경공업 분야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완충기(조정기)를 두어왔다.

한편 1993년 12월의 당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및 1994년 1월의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2-3년 동안이라는 완충기의 기간을 명시했으며, 완충기 설정에 대한 설명 뒤에는 반드시 중공업분야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완충기 동안의 정책이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정책보완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Ⅲ. 北·中 經濟關係 現況

1. 北·中 貿易推移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크게 한국전쟁 직후에 주로 시행되었던 경제 원조, 무역,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루어진 상호간의 투자, 두만강개발계획 등 다자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통한 협조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중국은 북한정부에 약 8,000만 달러에 달하는 無償援助에 더해 서평양, 고원, 정주의 철로건설을 지원했다. 또한 1960 - 70년대에 중국은 북한과 협정을 맺고 자금 및 기술원조를 시행했으며, 특히 1976년에는 북·중 양국이 공동건설한 ‘中朝友誼 送油管路’가 완공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주로 무역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표 2>는 1950 - 93년 동안 북·중 무역의 추이 및 무역수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中國과 北韓의 貿易推移

(單位: US\$ 100萬, %)

연 도	북한의 수입	북한의 수출	중·북무역총액	북한 무역수지
1950	4.1(5.1)	2.5(5.5)	6.5(5.2)	-1.6(-34.9)
51	19.0(48.7)	0.8(2.6)	19.8(28.4)	-18.2(-8.4)
52	23.6(35.2)	1.8(5.8)	25.4(25.9)	-21.8(-36.3)
53	49.6(53.1)	1.2(4.5)	50.8(42.3)	-48.4(-66.6)
54	87.7(72.7)	2.4(8.2)	90.1(60.1)	-85.3(-91.2)
55	79.8(56.2)	3.2(7.3)	83.0(44.6)	-76.6(-98.0)
56	68.0(40.3)	6.1(9.9)	74.1(32.1)	-61.9(-107.3)

연 도	북한의 수입	북한의 수출	중·북무역총액	북한 무역수지
57	40.2(28.5)	17.7(19.8)	57.9(25.1)	-22.5(-51.6)
58	52.5(35.5)	38.9(41.6)	91.4(37.8)	-13.6(-54.4)
59	78.0(35.2)	40.9(36.4)	118.9(35.6)	-37.1(-109.3)
60	74.1(47.3)	48.2(32.8)	122.3(40.3)	-25.9(-9.7)
61	70.2(36.6)	48.3(32.4)	118.5(34.8)	-21.9(-42.9)
62	88.5(42.4)	49.2(30.1)	137.7(37.0)	-39.3(-45.0)
63	95.8(42.7)	58.5(32.5)	154.3(38.2)	-37.3(-44.4)
64	99.3(42.1)	59.1(31.8)	158.4(37.5)	-40.2(-50.1)
65	106.7(39.2)	75.7(35.9)	182.4(37.8)	-31.0(-61.4)
66	126.2(46.2)	80.4(34.9)	206.6(41.0)	-45.8(-42.7)
67	103.0(35.3)	75.4(30.2)	178.4(32.9)	-27.6(-41.9)
68	73.9(20.6)	41.7(16.7)	115.3(18.9)	-32.2(-109.1)
69	51.9(12.4)	40.9(14.1)	92.8(13.1)	-11.0(-130.0)
70	67.0(15.4)	49.3(13.6)	116.3(14.6)	-17.7(-71.5)
71	103.8(16.1)	65.8(20.0)	169.6(17.4)	-38.0(-313.5)
72	180.9(24.0)	107.8(25.7)	288.7(24.6)	-73.1(-333.5)
73	239.3(24.1)	107.6(21.2)	346.9(23.1)	-131.7(-482.6)
74	267.6(18.8)	133.0(18.6)	400.6(18.7)	-134.6(-712.0)
75	312.5(24.5)	179.8(21.8)	492.3(23.5)	-132.7(-447.8)
76	275.0(27.6)	131.9(22.6)	406.9(25.8)	-143.1(-413.0)
77	249.9(28.5)	133.8(17.8)	383.7(23.5)	-116.1(-122.9)
78	253.8(23.6)	203.3(17.0)	457.1(20.1)	-50.5(123.2)
79	348.7(23.9)	300.1(20.1)	648.8(22.0)	-48.6(33.6)
80	411.7(22.6)	275.8(17.0)	687.5(19.9)	-135.9(-197.0)
81	336.6(21.4)	214.7(16.4)	551.3(20.4)	-121.9(-261.3)
82	311.2(19.5)	278.1(21.6)	589.3(20.5)	-33.1(-303.8)
83	302.1(20.5)	232.2(20.4)	534.3(20.4)	-69.9(-335.8)
84	253.0(17.9)	251.7(21.2)	504.7(19.4)	-1.3(-228.2)

연 도	북한의 수입	북한의 수출	중·북무역총액	북한 무역수지
85	260.4(14.6)	241.8(19.8)	502.2(16.7)	-18.6(-563.9)
86	276.5(13.2)	254.0(18.7)	530.5(15.3)	-22.5(-746.1)
87	308.0(12.0)	217.4(14.6)	525.4(12.9)	-90.6(-1091.8)
88	345.4(11.2)	233.7(13.0)	579.1(11.9)	-111.7(-1301.2)
89	377.4(13.0)	185.4(11.0)	562.8(12.3)	-192.0(-1219.2)
90	358.2(12.3)	124.6(6.7)	482.8(10.1)	-233.6(-1062.6)
91	524.8(30.7)	85.7(4.6)	610.5(12.8)	-439.1(-700.0)
92	541.1(34.8)	155.5(17.0)	696.6(28.2)	-385.6(-638.2)
93	602.4(39.2)	297.3(31.7)	899.6(36.3)	-350.6(-600.4)

자료 : 1950 - 82 : 중국경제연감편집위원회, 「중국경제연감」, 각년판.

1983 - 91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적요」, 각년판.

1992 - 93 : 대한무역진흥공사, 「'92, '9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방 현안해포트 93-5호, 94-2호.

주 : ()안은 북한의 수출입 및 수출입총액중의 비중과 무역수지총액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방향과 국제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대략 1951 - 56, 1957 - 1967년, 1968 - 71년, 1972 - 84년, 1985 - 90년, 1991년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그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951 - 56년 동안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복구기간으로서 중·북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후 복구기간 동안에는 북한전체 무역액중 중·북 무역이 약 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기간의 특징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적자로서 이는 실질적인 무역적자라기 보다는 당시의 북·중무역이 중국으로부터의 원조성 물품반입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북한경제가 전후 복구기를 거쳐 1957년부터 본격적인 제1차5개년계획 기간으로 진입하게되자, 1957 - 67년 기간 동안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북한의 對中國 貿易赤字도 그 절대규모가 줄어

들었다. 이 기간 동안은 북한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수출증대로 인해 중·북 교역량이 급증하여, 1966년도에는 총교역량이 2억달러를 초과 하였다. 한편 북한의 총교역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후복구기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40%에 근접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북한의 대중국 입조현상으로 미루어 볼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국의 支援性 수출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8-71년 기간은 중국에서의 文化大革命이 본격화한 시기이며, 동시에 북한이 국방력 증강에 주력했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은 중국경제의 혼란 및 북·중 정치관계의 냉각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북한의 총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15%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이 시기로부터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북한의 전체 무역적자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인데 이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이 감소했음과 점차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1970년 4월 중국 周恩來총리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정치·경제관계는 개선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 이래 북한이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무역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1972-84년 동안 북·중 무역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총무역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71년 보다는 증가했으나, 그 이전의 시기보다는 감소한 평균 20%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7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전체 무역적자액 중 중국의 비중이 낮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북한의 대서방국가 무역적자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8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국경제가 고속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여파로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80년을 고비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원조성 물품반입이 어렵게 되어 1984년의 경우 중·북무역은 거의 균형을 이루었다.

1984년 북한은 「合營法」을 제정하여 外資誘致를 시도하였으며, 중국경제의 개혁·개방은 심화되었고, 소련 역시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과 함께 경제개혁을 꾀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경제개

혁 시도는 중국의 그 것에 비해 소극적인 것이었으며, 소련경제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은 1970년대 초반의 대서방국가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 심각한 외채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소련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표 3> 참조)

〈표 3〉 北韓貿易中 中國과 蘇聯의 比重變化

(單位：%)

연 도	구 분	蘇 聯	中 國
1984	輸 出	38.2	20.8
	輸 入	33.3	17.8
1987	輸 出	46.0	14.6
	輸 入	54.1	11.9

자료 : 일본무역진흥회 해외경제정보센터,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1992. 9.

소련에 편중된 북한의 무역패턴은 소련이 체제전환의 과도기에 빠지기 전인 1990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표 4>에서 보듯이 1990년도에 50%를 상회하던 소련의 비중이 1991년 이후 10%대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홍콩을 더할 경우 약 41%에 이르게 된 것이다.

〈표 4〉 北韓의 主要貿易相對國 比重

(單位：%)

國 家	90	91	92	93
(1) CIS(USSR)	53.8	14.1	11.8	13.4
(2) 中國	10.1	23.6	28.2	36.3
(3) 香港	4.7	6.4	6.3	4.4
(2) + (3)	14.8	30.0	34.5	40.7
(4) 日本	10.1	19.7	19.5	19.1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판.

2. 商品交易 패턴

중국의 1993년 대북한 수출 주요품목을 보면 석유 및 제련용 코크스²⁾ 위주의 광물연료가 2억3천8백만달러, 곡물이 9천8백만달러에 달함으로써 이들 두 품목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²⁾ 1992년도 북한의 대중국 수입총액중 이들 품목의 비중이 53%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경제의 생존을 위한 기초산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2년도에 북한의 대중국 곡물수입은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식량부족에 따른 곡물수입선을 호주, 캐나다 등지로부터 중국으로 전환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2년도에 이어 93년에도 북한의 대중국 곡물수입이 전년대비 43%나 증가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설탕, 면화, 기계류, 전기기기 및 부품, 화학섬유 등이 있다.

1993년에는 전년에 비해 식품류와 화학섬유류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전기 전자 기기 및 부품과 고무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이 수출상품용 생산원자재의 수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여타분야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5> 참조) 특히 면화와 화학섬유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한국 및 홍콩등지의 기업에 의한 위탁가공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이 직접 생산원료를 공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으로는 93년의 경우 총수출액의 약 70%를 점유하는 강철이 있다. 그밖에 시멘트, 석탄 위주의 광물연료, 철광석, 어류 등을 포함한 상위 5품목의 수출액을 합하면 북한의 대중국 총수출액중 약 87%를 점함으로써 북한의 수출능력이 소수 1차산품에 국한되어있음을

2) 구소련의 경우 대북한 수출품목으로는 석유, 석유관련제품, 기계, 설비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소련해체 이후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경화결제에 따른 상업성 거래 위주로 전환되면서 목재, 승용차, 화물자동차, 의류, 비료 등으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CIS의 대북한 수입품으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류 및 철강제품, 텔레비전 등을 들 수 있다.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한 강철, 시멘트, 목재 수입이 급증한 것은 경제개혁 심화에 따른 중국 동북3성의 경제건설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6> 참조)

〈표 5〉 중국의 대북한 주요상품 수출실적

(단위 : US\$ 천)

품 명	1992	1993
광물성 연료, 광물유	222,323	237,861
곡물(사료용 옥수수)	68,477	94,029
당류 및 설탕과자	17,154	10,757
종자와 과일, 기타 식물면	14,530	13,569
	14,398	10,530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14,388	18,417
제분공업 제품	12,852	5,893
보일러 및 기계류	12,715	10,458
인조스테이플 섬유	12,095	5,235
고무 및 제품	10,331	16,513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 대한무역진흥공사, 「'93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방현안레포트 94-2에서 재인용하여 필자 정리.

〈표 6〉 북한의 대중국 주요상품 수출실적

(단위 : US\$ 천)

품 명	1992	1993
철강	66,878	207,706
석탄 등	18,530	8,295
철광석 등	17,076	12,520
어류, 갑각류 등	12,727	11,505
시멘트 및 석회	5,294	19,459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815	7,344
플라스틱 및 제품	3,151	3,339
유기화학품	2,653	1,542
비료	2,661	2,797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2,173	2,067
의류와 그 부속품	569	2,093

자료 : 〈표 5〉과 동일.

이와 같이 북중교역 상품구조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비록 1991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신속히 증가하였으나, 과거의 양국 간 협정에 의한 무역패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과 중국간의 상품교역은 여전히 원유와 곡물, 강철과 석탄 등 상호 필요한 소수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상품구조의 변동 폭이 큰 것이다. 또한 교역상품이 대체로 1차상품 이거나 생산의 우회도가 낮은 까닭에, 국제무역을 통한 부가가치의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구조의 분화 역시 매우 느린 편이다.

이는 북한경제의 수출상품 기반이 취약하고, 상품수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북중교역 패턴이 양국상품의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절대공급량의 다과를 감안한 바터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1992년도부터 종래의 국가간 협정에 의한 바터무역에서 경화결제로 무역형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거래방식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³⁾

3. 北·中 邊境貿易

최근 중·북 무역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변경무역의 급증이다. 대외 무역환경 변화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점차 국제시장가격 적용((표-7) 참조)⁴⁾ 및 경화결제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 국가간 협정무역과 유사한 교역형태의 변경무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3) 한국측의 소식원에 의하면, 1992년말 현재 북한의 대중국 총교역의 50%는 경화결제를 수반하지 않은 물물교환 및 청산계정으로, 30%는 경화 결제로, 그리고 나머지 20%는 민간부문의 국경래왕을 통한 무역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내외통신, 「내외통신」, 840호, 1993.3.25 참조.) 무역상품가격 역시 상품간의 물물교환 비율을 우선 협의한 후 事後的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중국측의 대북한 수출용 원유에 대한 국제가격 적용으로 인해 북한의 원유도입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원유도입량은 199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소량 감소했다. 그러나 원유와 곡물 등은 중국의 중앙정부 관할 품목이며, 북한의 대중국 원유 및 곡물 도입은 대체로 정부간의 협정에 의한 청산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원조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⁵⁾

〈표 7〉 年度別 北韓의 對中國 原油導入量 및 價格變化 推移

구 분	89	90	91	92	93
原油導入量(千ton)	1073.5	1062.6	1101.9	1005.6	1033
單價(US \$ /ton)	60	58	126	—	135
中國의 全體輸出	24338	23979	22600	21510	—
單價(US \$ /ton)	113	142	131	128	—

자료 : 1989-91 ; 일본무역진흥회,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p.64.
1992 ; 대한무역진흥공사,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방 현안레포트
93-5호.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1993」, p.642.

북한과 중국간의 변경무역은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1966년 이후 중국 문화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982년부터 길림성의 圖們市를 중심으로 재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을 추진하면서, 요녕성의 단둥 및 길림성의 開山邨, 三合, 南坪, 渾江, 集安을 통해 북중간의 상품 및 인적래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두만강유역개발계획에 따라 渾春 역시 대북한 경제교류 창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역시 북중변경무역을 활용하기 위해 신의주, 혜산, 남양, 회령 등지에 총 140여개의 중국상품시장을 개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 북한과 중국간의 변경무역은 수출가능한 품목리스트 제출 → 가격협상 → 수출입 균형 가능한 거래수량 결정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초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 초청으로 중국 길림성의 대외무역대표단이 8일간 북한을 방문한 결과 수출입상담 총액은 9,570만 US\$에 달했으나, 그 중 현금거래액은 단지 120만 US\$에 불과했다. 이는 북중변경무역의 대부분이 아직도 바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8〉 1991년도 주요 북중변경무역 지역 개황

(단위: 만톤, 명)

지 명	통관물품톤수	통과연인원
丹東(철로)	172.9	30,572
(육로)	3.4	—
圖們(철로, 육로)	125	90,000
開山邨(육로)	북한으로부터 목재 1만㎡ 반입	
三合(육로)	2.4	33,000
南坪(육로)	—	20,000
渾江(육로)	3.9	27,429
集安(철로)	4.6	17,000

자료: 經濟管理出版社, 「中國口岸概覽」, 北京, 1992.로 부터 필자가 정리.

양국간 변경무역은 「北·中 邊境貿易 擴大方案」 협의(1988.6)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중국 중앙정부의 「國境貿易管理 緩和措置」(1992.11)로 인해 중국측의 수입제한이 폐지되어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도에 북중변경무역의 주요 지점을 통해 통관된 물품은 약 350만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통과 연인원도 2십만명을 초과하였다.

1992년 북·중 변경무역 실적은 길림성의 1억 4천만달러와 약 1억달러로 추정되는 遼寧省의 교역액을 감안할 때,⁶⁾ 최소한 2억 4천만달러(양국 총교역액의 3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⁷⁾(〈표 9〉 참조).

6) 日朝貿易會, 「日朝貿易」, No.407, 1993. 1, p.18.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중국 변경 무역에 관한 소고」, KDI 정책포럼 제31호, 1994. 1.에서 재인용.

7) 1992년 현재 양국이 변경무역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품목은 약 200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수출품목은 해산물, 목재, 철강, 석탄, 은 마그네슘 등의 1차산품이며, 자동차·화학비료 등을 제3국에서 수입하여 재수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곡물·식용유·통조림 등의 식료품 및 지방특산물과 축산물, 경공업 및 방직제품, 화공제품, 전기기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소관품목이 아닌 원유·석탄·코코스 탄 등의 연료나 원자재의 변경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출처: 吉林省經濟貿易委員會 統計,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중국 변경무역에 관한 소고」, KDI정책포럼 제31호, 1994. 1 재인용).

〈표 9〉 北韓의 對吉林省 邊境貿易(1986 - 1992)

(單位: 萬 스위스 프랑)

年 度	輸 出	輸 入	貿易總額
1982	51	52	103
83	535	664	1,199
84	2,335	535	4,445
85	5,229	2,335	10,987
86	4,184	5,229	8,656
87	6,046	4,184	12,772
88	7,926	6,046	15,796
89	11,681	7,926	22,856
90	6,650	11,681	14,802
91	6,642	7,266	13,908
	(4,428)	(4,844)	(9,272)
92	—	—	21,154
			(14,103)

주: 1) () 안은 91, 92년도 길림성 美달러貨 공식발표치임.

2) 1993년말 북한의 외환율을 기준으로할 경우 미화1달러는 1.5 스위스 프랑에 해당함. 91, 92년도 수치는 필자가 이를 적용 환산.

자료: 吉林省 經濟貿易委員會 統計(韓洪錫, 「中國における邊境貿易の現状と役割」, 「アジア經濟」, アシア經濟研究所, 1993.7, p.79에서 재인용.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경무역의 현황과 향후 전망」, 1993.8.

〈표 10〉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에는 중국의 동북3성과의 총 교역액이 약 7억3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수치의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현재 중국과 북한간의 교역은 중국세관통계상 구분이 불가능한 중국중앙정부의 원조성 대북한 수출, 변경무역, 중개무역 등이 혼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계자료원에 따라 이들간의 관계가 모호할 경우가 많은 것이다.

흥미있는 사실은 〈표 10〉에서 동북3성의 대북한 수출액과 중국전체수출액과의 차액은 곧 중국의 대북한 수출상품중 원유와 코크스, 곡물 등 중국

의 중앙정부관리하에 있는 품목의 수출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명확히 수출입관할권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들 품목이외에 모든 대북한 수출이 동북3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북3성이 자체생산한 수출품이나 자체수요용 수입이 아니라도 일단 통계상으로 동북3성의 변경 무역으로 기록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10〉 1993년도 중국동북지방의 대북한 변경무역액

(단위 : US\$ 만)

지 역	대북한수출	대북한수입	총 액
길림성	22,962	24,164	47,126
요녕성	4,600	4,000	8,600
흑룡강성	10,449	6,448	17,897
합 계	38,011	34,612	72,623

자료 : 「外貿調研」, 第12期, 1994.4. 대한무역진흥공사, 「'93년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북방현안레포트 94-2에서 재인용.

한편 곡물과 원유 등 주요 국가관리품목의 대북한 수출은 과거의 북중경 제관계로 미루어 보아,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성 수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⁸⁾ 이로 미루어 볼 때, 원유 등 국가관리품목을 제외하면,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은 대체로 수지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교역상의 수지평형은 일반적인 다자간 무역관계 속의 수지평형이 아니고, 바터제 교역이 실행되기 이전 상호 협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10〉에 제시된 북한의 대중국 동북3성의 수출총액이 중국해관 통계상의 대중국 북한수출총액보다 큰 이유는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표 10〉의 자료출처는 동북3성 경제위원회 등이므로 해관통계

8) 곡물 및 원유 등 지원성 수출에 대한 결제는 청산계정으로 처리되며, 이는 중앙정부간의 협상에 의해 결제시일이 연기되거나, 지원의 명목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와 같이 통관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일 가능성이 크다.⁹⁾ 둘째, 중국측의 많은 무역회사가 대북한 교역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自社의 교역실적을 과대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수입품의 세관신고 가격과 실질평가 가격이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¹⁰⁾

이러한 통계상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북3성과 북한간의 변경 교역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華南 및 華東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개혁·개방 추진 속도가 뒤떨어졌던 동북3성의 개발붐에 따른 북한산 기초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데다, 북한의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인해 중국산 상품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비록 바터제 형식의 초보적 무역형식이나 양측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¹⁾

4. 貿易이외의 經協經路

무역이외의 중·북 경제관계의 통로로는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등장하기 시작한 중·북상호간의 투자활동과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합영법」제정 이래 1990년까지 중국의 대북한 투자건수는 10여건에 달했으며, 북한 역시 北京, 延吉, 丹東市 등에 수십여건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중합작회사 설립의 예로서 1994년 4월에는 「中朝友誼泥炭(土炭)生

9)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 경우, 북한이 상품납기를 잘 지키지 않는 까닭에 계약금액과 통관금액은 종종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대북한 수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10) 이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 세관신고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11) 북중 변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4년초 전문업체 대표로 구성된 길림성 대외무역 대표단이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결과 수출입 상담액이 9천5백만달러에 달했다. 또한 '94년 3월에는 단동시의 왕준런 부시장 인솔하에 무역 상담대표단이 1주간 북한을 방문하여 1천9십만달러의 수출입계약을 성사시키고, 1천9백만달러 상당의 수출입 의향서를 교환했다. 한편 북한은 '94년 5월 단동시에서 개최하는 무역촉진회에 시찰단을 파견했으며, 단동시 역시 평양에서 단동상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각호.)

化學複合肥料工場」이 착공되었으며, 완공될 경우 연간 2만톤의 토탄생화학비료를 생산하게 된다. 이 합작계획에서 중국측은 기술과 전문가 및 설비를 제공하게 되며, 북한측과의 투자비율에 따라 생산품을 분배하기로 했다.

또한 延吉의 鮮虎企業集團은 북한의 靑津東港 사용권(50년)을 획득했으며, 이와 관련 회령-청진 구간의 도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기업인 길림성 연길시 소재 延吉公交物資貿易商社는 북한의 관계당국과 여러차례 접촉을 갖고 人民幣 3억7천만원(약 4천5백만달러)을 투자하여 청진항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호텔 및 도로건설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그러나 무역이외의 중·북 경제관계는 아직 그 규모에 있어서 미미한 수준이며, 실험단계에 있다 하겠다. 상호투자활동이 무역에 비해 저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경제체제와 중국경제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중국측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윤동기의 합작을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나진·선봉을 포함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을 둘러싼 북·중·러 3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도 무역이외의 경제협력 경로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Ⅳ. 北·中 經濟關係의 性格 및 制約要因

本稿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70년대 이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외경제부문의 활용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

12) 「大公報」, 홍콩, 1994. 1. 26일자 참조. 중국은 이미 1992년 11월에 러시아측과 자루비노항을 중개무역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댓가로 중국측이 3억 5천만달러의 자금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루비노항 확장공사와 훈춘과의 철로 연결작업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 동해안 진출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동북지방개발 및 일본과의 통상을 위한 주요한 항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체제의 개혁은 도외시해왔기 때문에 대외경제부문 활성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결국 1990년대의 경제침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자유무역항의 지정과 법률정비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치 및 이념적 제약속에 그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당분간은 대외경제와 대내경제의 유기적 연결을 포함하는 중국식의 적극적 경제개혁이나 개방정책의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한경제의 비효율성과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특히 무역관계는 북한경제정책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어왔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과 무역상대국간의 무역수지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방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50-60년 기간 동안 북한의 수입초과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1961-70년 기간에는 중국과 소련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1970년대에는 일본과 서방공업국가로부터 생산설비 도입에 주력한 결과 이들 국가에 대해 상당한 무역적자가 누증된 것이 특징이며, 1978-84년 기간 동안에는 특히 일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1985년 이후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련과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1991-92년 기간에는 소련의 역할이 급감한 대신 중국의 비중이 중요해졌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 및 서방공업국과 중국 및 소련(1990년 이전 시기의) 역할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서방공업국과의 무역적자누증은 곧바로 북한의 외채부담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적극적인 생산설비 수입은 1970-1980년대 초반에 제한되었다. 현재 북한경제상황으로 보아 당분간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패턴을 통해 보았듯이, 중국 및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초과는 주로 원유 및 생산원자재 등의 원조성 물품반입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중·소와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무역수지의 크기는 중·소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상대적 의존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91년 이후 북한과 소련의 무역관계는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으나,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관계는 과거의 무역관행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 더욱이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은 중국

으로부터 원유 및 식량 등 주요 품목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일반적 대외무역 형태와는 달리 북한과의 교역은 아직도 대부분이 청산계정이나 바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상존한다고 하겠다. 단지 과거에 중국의 중앙정부차원의 무역절차가 길림성이나 요녕성과 같이 북한과의 접경지역 성정부관할로 전환되었을 뿐인 것이다.

〈표 11〉北韓의 交易對象國別 貿易收支 推移

(單位: US 百萬달러)

연 도	합 계	蘇聯(CIS)	中國	日本	OECD
1946-49	—	-47.0	—	—	—
1950-53	-146.1	-48.4	-89.9	—	—
1954-60	-520.1	-47.6	-323.0	-2.4	—
1961-70	-639.1	-325.2	-304.0	52.4	(-66.7)
1971-77	-2825.1	-892.3	-769.1	-550.5	-772.6
1978-84	-1351.4	-70.5	-464.5	-1319.4	24.7
1985-87	-2401.8	-1637.5	-131.7	-169.1	-229.9
1991-92	-1338.0	-185.0	-824.7	94.1	—

자료: 1946-88년 자료; Soo-Young Choi,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Structure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1991) 1991-92년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이와 같은 북·중경제관계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중교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에는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경제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수출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바터제 교역이 가지고 있는 결제방법 및 가격결정상의 결함으로 인해 북중간의 교역증진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¹³⁾

13) 국제무역의 발전요인중 중요한 것으로는 국가간의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특화현상 및 규모의 경제실효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간의 쌍무적 바터교역은

둘째,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강철, 시멘트, 목재 등은 북한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경우 북한자재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울 품목이다.

셋째,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출품인 원유, 곡물 및 식품류, 일부 기계부품 등은 중국과 북한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 상품구조라기 보다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국내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임시적 상품구성일 뿐이다.

넷째,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은 지리적인 근접성에 의한 무역발전요인은 갖추고 있으나, 두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와 통신 및 국제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결여하고 있다.¹⁴⁾

V. 北·中 經濟關係 發展展望

북한은 근래에 수출증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방단위 대외무역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을 고취하고 있으나, 아직 북한의 수출촉진정책은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특화를 지향하고 있다기 보다는 수출자원 동원을 통한 외화획득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자유치 역시 법률제정을 통한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위탁가공교역은 아직 필요한 거의 모든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하므로 외화가득을 매우 낮으며, 그 대상이 봉제 등 초보적 경공업부문에 국한됨으

일정기간 동안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무역의 편익 역시 개별 상품 교역에 따른 수익성보다는 전체교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 의해 평가되므로, 산업특화나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지속적 무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된다.

14) 즉 중국 동북지방의 개방·개혁이 촉진되고 북한이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는 경우, 두 지역은 다같이 비교우위적 관점에서 보다 발전된 경제권과의 교역을 선호할 것이다.

로써 북한이 바라고 있는 수출상품 제조 기술습득효과 역시 매우 낮은 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북·중 경제관계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간의 쌍무적 협정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와 곡물은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있으며, 매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원유 및 곡물 도입은 중국의 지원성 수출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중앙정부차원의 청산계정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북한에 대해 경화지불의 압력이 심각한 정도로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북·중변경무역은 주로 바터형식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체로 쌍방간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북·중교역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로서는 길림성과 요녕성 등 중국 동북부지방은 중국에서도 경제개혁의 속도가 느린 1차산업 및 중공업위주의 지역이라는 점과, 지리적 위치로 인해 대외개방의 정도 역시 다른 지방에 비해 낙후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이 현재와 같은 교역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개혁·개방이 가속화 되고 북한의 1차상품 수출원이 고갈됨에 따라 바터형식의 무역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본질적인 경제체제의 개혁없이 우선 필요한 생필품의 조달원으로서 북중무역을 활용할 경우 국제환경변화나 북한자체의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북중교역은 단시간내에 격감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바터제 무역의 결함으로 인해 지속적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차원의 원유 및 곡물 수출도 일단 국제가격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한 북한으로서는 무한정으로 의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중국에서도 경제개혁의 진행에 따라 경제논리가 지배적 논리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중국의 원조성 수출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한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이권을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탈피를 위한 노력과 중국

동북3성의 개발붐의 여파에 의해 북중경제관계의 외형적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북중교역방식의 결함 및 교역환경의 미비로 인해 북중경제관계의 장기적 발전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Ⅵ. 맺음말

1991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대외경제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1960년대 이래 가장 밀접한 관계로 발전했다. 중국은 북한체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와 식량의 주공급원이 되었으며, 북한은 북중변경무역을 통해 주민의 생활필수품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경제체제의 개방에 따른 새로운 관계의 발전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동북3성과 북한간의 바터형식 교역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이는 단지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1980년대 중반이후 1990년 까지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패턴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중 무역관계의 문제점으로는 북한의 수출능력 부족, 바터무역의 비효율성,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임시적 상품구조,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한경제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다자간의 비교우위에 의한 지속적 북·중 무역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투자 및 기타 경제협력 경로의 발전 역시 제약을 받고 있다.

종합하여 볼때, 북한과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상호 필요성에 의해 당분간 北·中 경제관계는 양적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국내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北·中 경제관계는 큰 폭의 기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北·中 경제관계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한계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